

‘저성장 늪’ 한국경제 신산업 키우고 복지 확충해야 희망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특별 인터뷰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장하준 교수는 창사 65주년을 앞두고 지난 15일(현지시간) 광주일보와 진행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전망’ 전화인터뷰에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맞아 나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복지국가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신산업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저소득층 소득 분배해야 경제 선순환

車·반도체 벗어난 신산업 발굴 시급
자금·기술·정책... 정부차원 지원 필요

-대선이 코 앞이다. 정치적 계기를 통해 나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는데 차기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계속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었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은 꼴찌나 그 언저리, 비정규직 OECD 국가 중 최하위 등 문제만 남았다. 은퇴 연령은 빠르지만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노인들 많아졌고 국민생활도 어렵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까지 한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한다. 복지제도를 확충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신산업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산업정책으로 신산업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그게 독재와 연계돼 영망이 됐다. 1980년대 이후 20~30년간 신산업 육성이 등한시됐다. 그러다보니 중국에게 추격당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턱까지 추격했다. 새로운 산업 진출에 묘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산업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할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신산업 정책과 이를 통한 복지제도 확충이다. 신산업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다. 2~3년 내에 결과가 안나온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산업 정책을 펴고 단기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하위소득층이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소득을 분배하면 더 소비하니까 기업판로 늘어나고 국민생활 안정되면 국가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다.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워낙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은 10% 안팎인데 OECD 평균은 21~22% 정도다. 복지 수준이 낮다고 하는 미국도 19~20% 정도다. 유럽은 30%가 넘는 나라도 많다. 한국이 유럽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수준까지는 다 같이 조금 빨리 가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를 선순환시



키고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경제 발전과 어울리는 복지정책 확충 요구가 높다는 분석인 것 같다. 과연 타당한가.

▲타당 정도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말도 안된다. OECD 국가 중 낮은 국가는 멕시코 밖에 없다. 멕시코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반이다. 장기간의 결과다. 자살률 1위와 출산율 최저 이런 결과만 봐도 꼭 놀라야 한다. 복지지출은 돈을 태워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공동의

4차산업혁명 따른 실업 한계 있을 것
기업 기술혁신하면 새 일자리 늘어나

美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 실행 미지수
국가간 공조·상품 경쟁력 높이면 극복

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부터 국민들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다. ‘사회보험의 공공구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지역 분권 경제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장 교수의 생각은 어떤가.

▲과거 산업정책으로 산업이 집중이 되다보니 지역 불균형이 생겼다.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을 우선하다보니 수도권 아니면 영남 지역이 우세했고 전라도 등 다른 지역은 지역 경제 기반이 없고 능력있는 사람도 많이 떠나고 해서 지역 격차가 심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제다. 하지만 지역 격차가 크지 않는 나라도 많다. 독일은 주정부는해서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에 특별대출을 해준다거나 주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도와준다. 스위스는 기계공업이나 정밀화학 등 중소기업에 잘 맞는 업종을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분야에서도 500~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세계 1위 기업을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과 기업을 많이 키워야 한다.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하네 의식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야 한다. 관공서 이전 등은 기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평소 지역 공동체 부활과 상생의 경제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변화를 강조해왔는데 구체적 대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변화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좋게 해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과거 우리사회는 서울이든 영남이 됐든 경제가 집중되면서 복잡해지고 생활환경이 척박해졌다. 좁은 데 많이 모아 살아야 했고 복지도 갖추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런 점을 산대적으로 경제집중이 덜 된 지역은 역이용해야 한다. 생활환경 좋게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복지도 많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도 투자한다. 공동체 의식 없이 돈만 벌러 왔다는 이런 지역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중소기업 키워서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소득 재분배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기업의 대책은.

▲개념 자체가 문제 있다.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들이 놀랍지만 없던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 당황하면 안되고 차분하게 봐야 한다. 기업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기술혁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살아남을 수 없으니 기술혁신해야 할 따름이다. 일자리 없어질까봐 기술혁신 천천히 해야 한다는 소리는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보자는 기술혁신하면 일자리 생긴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실업자들도 새일자리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실업자들이 특정산업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옛날보다 실업자가 수십만명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가능한 문제다. 이런 문제는 기업이 다 처리할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 재취업 프로그램 만들어 실업자를 다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제경제 흐름에 대해 묻겠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트럼프가 러비공같은 사람이라 어디로 뺄지 알기 어렵다. 보호무역과 관련한 발언 강도가 매우 센 편이지만 이를 실제 실행할 수 있을지, 또 실행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뒤집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완결할 수 없지만 WTO 내에서 더 보호무역 정책쪽으로 가긴 같겠다. 하지만 할 수 있어도 이를 하도록 미국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건이 대부분 중국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산에 관세 35%를 더 붙였으면 가만 있겠느냐. 트럼프는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수출하는 입장의 국가에서는 공장을 미국 보다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 돌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영향을 있을 것 같은데. 이에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문제 당하는 게 비단 한국 뿐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국제적 합의를 가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면 다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섬유와 의류, 신발로 들어갔는데 그 때도 그랬다. 결국은 물건을 잘 만들어 보호무역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과거 한국이 철강이나 자동차 수출을 시작할 때도 미국, 유럽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장하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7세였던 1990년 한국인 최초로 동 대학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강단에 서고 있다.

2003년 워르달상, 2005년 레온티에프상을 최연소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2013년에는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가 조서한 ‘올해의 세계 사상가 65인’ 가운데 18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 교수 부친은 광주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고, 동생 장하석씨는 장 교수와 같은 케임브리지대에서 과학철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 교수의 사촌이다. 저서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사다리 걸쳐치기’, ‘개혁의 빛’, ‘왜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이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명박 정부가 정한 불온 도서로 꼽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종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종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소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유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